

다우코닝, 환경과학교실 개최

Dow Corning Korea는 한국환경교육협회와 함께 충청북도 소재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과학교실을 진행했다.

31개 학교, 1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해 폐기물 줄이기와 재활용을 주제로 폐지 및 우유팩을 활용한 종이 압축, 재활용 예술품 제작 실습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교육 후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수업 전 재활용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답한 초등학생은 39.2%(중학생 32.5%)에 불과했지만 수업 후 91%(중학생 94.3%)의 학생들이 “앞으로 재활용을 잘 실천할 것”이라고 답해 환경과학교실을 통해 학생들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호 대표이사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 보호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기획된 환경·과학교실이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과 직원들의 호응이 커지고 있다”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 재활용·환경 교육을 통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리더로 변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Dow Corning Korea는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 원칙에 따라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또한 재료 변환 프로그램(Material Conversion Program)을 통해 생산공정에서 폐기된 실리콘을 재활용해 사용 가능한 신제품으로 재생토록 지원하고 있다. <고우리 기자>

<화학저널 2009/12/08>